

보컬프로듀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

조태선
청운대학교
e-mail: entheos@korea.com

A Research on introduction of Vocal Producing System

Tae-Seon Cho

*Choongwoon graduate school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가요계의 발전과 더불어 음반제작도 분업화 전문화 되고 있다. 프로듀서, 보컬트레이너, 보컬디렉터 등이 그것인데, 그중에서도 보컬 디렉터의 역할이 음반을 녹음할 때 보컬을 컨트롤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보컬의 또 다른 능력이나 개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음반이 만들어지기 전 보컬 양성과정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보컬 프로듀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이다.

1. 서 론

2. 본 론

음악제작 방식의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된 과정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듀서이다. 이는 책임자를 두어 음반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프로듀서는 곡 선정에서부터 음악 편곡 등 전 분야를 총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된다.

가수들의 음반녹음에 있어 프로듀서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컬디렉터이다. 보컬 디렉터는 녹음작업에 있어 보컬 부분만을 전담하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원곡의 해석에 충실하여 가수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컬디렉터의 역할인데 그동안 보컬디렉터의 영역은 주로 녹음실에서의 작업에 국한되었다. 사실 보컬디렉터는 가수가 소리를 만들어가는 연습 과정에서 부터 함께 훈련해야 하는데 녹음과정에만 참여하다 보니 목소리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본인만의 개성이 생명인 대중가수의 경우 개성의 창출은 중요한 과제이며, 개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전 훈련부터 보컬디렉터의 역할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요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녹음실 공간에서의 디렉터의 역할을 뛰어넘는 보다 복합적인 보컬프로듀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2.1 개요

한국의 대중음악은 역사가 매우 짧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60년대 팝음악의 유입으로 인해 70년대 초, 중반에는 포크송이 전성기를 맞게 된다. 청년문화를 대표하던 포크송은 70년대 후반 여러 가요제가 시작되면서 가요계에 또 다른 형태의 음악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Campus Song(캠퍼스 가요)이라고 하는 것인데 캠퍼스 가요라는 장르가 생겨나기 까지는 대학가요제, 해변가요제, 강변가요제 등 각종 가요제의 역할이 크다. 당시의 가요제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20대의 젊은이들의 욕구와 열정을 분출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가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은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80년대는 조용필이라는 위대한 뮤지션의 탄생과 더불어 중, 후반 신승훈, 이승환, 조태선, 변진섭 등 발라드 음악의 전성시대를 맞게 되면서 음반판매량에 있어 가요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되었다.

가요계 최초로 음반 판매 100만장을 기록해 기네스 북에까지 오른 조용필에 「창밖에 여자」 앨범을 시작으로 변진섭, 신승훈, 이승환, 김건모 등의 가수가 밀리언셀러 대열에 가담하면서 한 가수의 앨범 총 판매량이 1000만장을 돌파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요계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후 서태지의 등장으로 한국식 랩, 힙합 등의 댄스뮤직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2.2 보컬프로듀서

가요계가 양적인 성장의 이루게 되면서 그로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음반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문화, 분업화인데 한사람의 제작자 또는 한 두 사람의 작곡가나 편곡자에 의해 제작되어지던 음반이 여러 전문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작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다.

예전의 제작방식은 작곡가가 만든 곡을 기타 혹은 피아노 등 기본반주만 있는 상태에서 가수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편곡과정을 거쳐 반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반주에 따라 작곡가가 가수를 지도하게 되는 단순한 작업 형태였다. 그래서 가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시대적인 상황, 여건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 가수는 작곡가가 노래를 주는 대로 작곡가의 취향대로 부르면 되는 어찌 보면 지극히 획일적인 방법이었다.

음악제작 방식의 전문화되면서 보컬녹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컬부분만을 담당하는 디렉터가 생겨나게 되었다. 보컬 디렉터는 녹음작업에 있어 보컬부분만을 전담하는 전문가로서 가수의 노래를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의 보컬디렉터는 주로 녹음실에서의 작업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원곡의 해석에 충실하여 가수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컬디렉터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녹음과정에만 참여하다보니 소리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개성이 생명인 대중가수의 경우 개성의 창출은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전 훈련부터 보컬디렉터의 역할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음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가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부터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보컬 프로듀서의 도입이 요구된다.

2.3 사례분석

보컬프로듀서로서의 최초 성공사례는 가수 조관우를 제작했던 작곡가 하광훈을 들 수 있다. 하광훈은 조관우의 앨범을 제작했던 프로듀서인데 보컬프로듀

서의 영역에 넣을 수 있는 건 조관우 1집에서의 하광훈의 역할 때문이다. 작곡가 하광훈은 앨범제작자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관우라는 가수를 탄생시켰다.

본명이 조광호인 가수 조관우는 이미 본인의 앨범을 발표했던 가수였는데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앨범에 가수의 특징이나 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평범한 스타일의 발라드 곡에 무난한 창법, 비디오와는 썩 잘 어울리지 않는 외모로 인해 가수 조광호(조관우)의 앨범은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없었다. 물론 판소리 인간문화제 조통달¹⁾ 선생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국악을 접하고 학교 역시 국악예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호흡이나 발성은 어느 가수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하지만 노래 실력보다는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대중음악계에서 가수 조광호(조관우)는 전혀 빛을 낼 수 없었다. 그러다 작곡가 하광훈을 만나게 되면서 이름도 조관우로 바꾸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수로 태어나게 된다.

조관우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일명 귀곡성 창법이라 하는 독특한 창법인데 이는 작곡가 하광훈을 만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 진성이 아닌 고음의 가성으로 불러 마치 귀신의 소리와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조관우 만의 독특한 창법이 바로 하광훈의 작품인 것이다.

그러한 창법은 당시 대중음악계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발성의 또 다른 장르를 만들어놓기에 이르렀다. 물론 좋게 평하는 사람들보다 수준이하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1집 앨범은 호기심에 대중들이 좋아할 뿐이고 2집 앨범 이후부터는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한 조관우의 창법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나고 다운타운가에서 활동하는 가수들 중에는 그 목소리를 따라하는 무명가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조관우를 좋아하는 팬들의 대부분은 여성 팬 특히 미시주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성 팬 들은 남자답고 다소 터프한 목소리를 좋아했다. 움츠리는 소리보다는 시원하게 터지는 노래 소리에 매력을 느끼고 열광했다.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조용필인데 작은 체구에서 뿜어

1) 국악 판소리 명장. 가수 조관우의 아버지

져 나오는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수많은 여성 팬 들을 사로잡았다. 그 반면 조관우의 창법은 아주 여린 듯 하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중성톤²⁾으로 인해 남성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채수 없는 목소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비아냥 거림이 여성 팬들에게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성 톤의 여린 목소리는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하였고 여성들의 감성과도 맞아 떨어져 20대 후반에서 3, 40대 여성들에게 더욱더 노래에 빠져들게 하는 중독성까지도 갖게 하였다.

보컬 디렉터의 기본적인 임무는 원곡을 가장 잘 부를 수 있도록 가수를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관우의 사례에서 보듯 더욱 중요한건 가수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가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보컬프로듀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대중음악계에서 프로듀서란 말자체도 다소 생소했던 시절 하광훈은 작곡가 입장에서 조관우란 가수를 보았다. 그리고 이 가수에게 뭔가 특별함을 부여해 주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은 시간 함께 노래를 불렀다. 또한 가수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된 훈련과정이 이어졌다. 그 결과 당시로서는 누구도 상상 할 수 없는 창법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관우의 앨범을 프로듀스 했던 하광훈은 최초의 보컬디렉터이며 더 나아가 보컬 프로듀서였다.

3. 결 론

가요계에 처음으로 프로듀서란 전문직종이 생겼을 때 신기해하던 것이 기억난다. 외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시스템인데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한편으로는 괜히 돈만 더 들어 가는 거 아니냐는 일부제작자들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프로듀서의 제작시스템이 보편화되었고 음반에 대한 저작권까지도 인정해 주고 있다.

보컬디렉터 역시 보다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가요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의 녹음 작업에 보

컬디렉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보컬디렉터로 인해 가요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보컬디렉터의 역할이 녹음작업에 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녹음작업에 한정되어 있으면 원곡의 느낌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가수로 하여금 뭔가 새로움이나 독창적인 부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때문에 가수의 트레이닝과정에서부터 보컬디렉터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한다. 단순히 훈련을 하기 위한 선생님이 아닌 기본적인 훈련과 아울러 가수의 특징을 찾아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는 역할을 맡을 보컬 프로듀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작곡가 하광훈과 가수 조관우의 만남에서 우리는 익히 보컬프로듀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가요계에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 01) 조태선 2005 대중가요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02) 박승희 1994 가수가 되자 녹진
- 03)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 04) 브라이언 룡 허스트 1999 대중음악과 사회 예영 커뮤니케이션
- 05) 강인중 1999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 낮은 울타리
- 06) 김지평 2000 한국가요 정신사 아름출판사
- 07) 선성원 1993 8군 쇼에서 랩까지 아름
- 08) 후쿠시에이 2002 나도 명가수 아름
- 09) 오한승 2001 나도 가수가 될 수 있다 김영사
- 10) 이영미 1998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2) 남성과 여성의 중간소리라는 뜻으로 거칠지 않은 美聲 을 일컫음.